

투데이 칼럼

아카시꽃

계절의 여왕 5월도 어느덧 하순이다. 세상 모든 식물들이 초록으로 물들어 있다. 그 초록 사이로 전국 산하를 하얗게 물들이는 꽃이 있다. 바로 아카시 꽃이다. 마치 하얀 실터레를 매달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마디마다 작은 등불을 켜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차를 몰고 한적한 외곽으로 들어서면 달콤한 아카시 꽃향기가 콧속으로 스며든다. 도로 가장 자리에 길게 늘어선 함박눈처럼 꽃이 피었다. 그 향기 따라 유년의 추억이 아련하게 떠오른다.

아카시꽃은 화려하지는 않지만 매력적인 꽃이다. 아카시 꽃이 피면 누구든 낭만에 젖어 시인이 되고 싶어진다. 해질녘이면 아카시꽃 향기가 가슴으로 전해지며 마음을 환율하게 한다.

우리나라 산과 들에는 아카시가 많다. 허물어진 언덕바지에까지 아카시나무 천지다. 내 고향에도 아트막한 산밑이나 냇가 방둑에 아카시나무가 즐지어 있다. 해마다 모내기 철이면 아카시 꽃향기가 매혹적이다. 아카시 향은 은은하고 부드러우면서도 달달함을 느낀다.



신 영 규
전북수질과비광직기회의 회장

가난했던 시절 아카시 꽃을 따 먹었다. 꽃잎으로 허기진 배를 달래기도 했다. 아카시 꽃을 한 주먹 따서 입속에 넣고 씹으면 달콤한 향이 입안에 퍼지면서 씹히는 식감이 부드럽다. 일부에서는 아카시 꽃잎으로 전을 부쳐 먹거나, 또는 아카시꽃튀김과, 아카시떡을 만들어 먹었다. 꽃전이나 꽃튀김을 먹어본 적은 없지만 아카시꽃 특유의 은은한 향과 달콤함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맛일 것이다.

봄철 대표적 밀원(蜜源) 나무로 '아카시꽃'을 꼽는다. 그 향 또한 일품이다. 우리나라 꿀의 60~70%는 아카시꽃이라고 한다. 아카시꽃술은 신장열과 방광염에 좋다고 알려져 있다. 아카시 씨앗 기름은 결핵 예방에 효능이 있다고 전해진다. 아카

시 꽃은 말려 차로 마시면 열증에 좋은 천연 항생제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아카시 꽃은 다양한 약재로 쓰이고 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카시'를 '아카시아'로 잘못 알고 있다. '아카시나무'와 '아카시아나무'는 같은 장미목 콩과에 속하지만, 학명은 물론이고 영문명, 잎·꽃 형태, 개화 시기, 특징 등이 모두 다른 식물이다. 어릴 적부터 아카시아라고 불렀던 습관인지 아카시라는 걸 알면서도 곧장 아카시아라고 부르게 된 것이다.

한국 등우 중 하나인 '과수원길'에서 "아카시아꽃 하얗게 핀..." 운운하는 게 아카시아와 아카시나무를 혼동하기 때문이다. 실제 아카시아는 대부분 노란 꽃이 피며, 아카시나무에서

는 하얀 꽃이 핀다. 그러나 흔히 쓰인다는 이유로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아카시나무를 아카시아로 부르는 것을 인정해 버려서 비판을 받기도 한다.

아카시나무의 원산지는 미국 동부지역이다. 지금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에 퍼져 있다. 꽃은 5~6월에 핀다. 작은 흰색 꽃이 모여 포도송이처럼 길게 늘어선 모양을 하고 있다. 아카시나무꽃은 향이 매우 강해 벌과 같은 곤충들을 모여들게 해서 양봉업자들이 좋아하는 나무이기도 하다. 꽃말은 '비밀스러운 사랑'이다.

반면 호주가 원산지인 아카시아나무는 노란색 꽃을 피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흔히 '미모사'라고 부르기도 한다. 꽃말은 '우정'이다. 노란 꽃을 매우 풍성하게 피우기 때문에 관상용으로 많이 식재된다. 단, 아열대 식물이므로 한국에서는 제주도에서만 볼 수 있다.

5월의 초록 바람에 아카시 꽃이 다발다발 석등처럼 빛난다. 꽃잎 사이에 핀 해맑은 웃음, 마치 팝콘을 터뜨려 나무에 매달아 놓은 듯 개천 독방과 도로가에 하얗게 핀 아카시꽃이 가느뻑 봄을 붙잡고 있다.

기고문

“대선 기간, ‘노쇼 사기’는 자영업자의 눈물입니다”

현재 제 21대 대통령 선거가 진행 중인 가운데, 자영업자들의 ‘노쇼 사기’ 피해가 전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정당 관계자나 선거운동원을 사칭하는 사례가 빈발하는 등 사칭 피해 범위가 넓어지면서 예방이 점점 더 힘든 상황입니다.

‘노쇼 사기’는 고의적으로 약속을 해놓고 연락을 끊거나 나타나지 않음으로써 타인에게 경제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로, 단순한 실수나 개인의 무책임을 넘어서 의도적으로 상대의 재산과 영업을 침해하는 범죄 행위입니다. 또한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자주 발생하고 있는 경우를 예시로 들자면, 각 정당 선거 캠프, 선거운동원, 대선 후보 지인을 사칭해 많은 인원이 식사하러

간다고 예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자영업자는 단체손님 예약을 받고, 기대하며 재료를 준비하거나 인력을 추가 고용을 함으로써 당일 수입 손실을 넘어서고, 다른 손님을 받지 못한 기회비용까지 감수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그 피해 규모는 자영업자들의 생계에 위협을 주는 단계까지 도달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선거기간에는 동업인이 여러 곳에 단체손님 예약을 걸어두고, 모두 나타나지 않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일부 식당에서는 이에 선거관련 식당 예약을 받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경찰은 더 이상 ‘노쇼 사기’를 ‘관행’이나 ‘실수’로 치부하지 않고, 반복적이고 계획적인



김 선 민
장수경찰서
경비안보과 경장 (승)

경우 형사 입건 및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수사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또한 ‘노쇼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피해 예방법 매뉴얼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예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예약금 제도 운영 △ 문자/전화

등 예약 확인 절차 강화 △ 고위 예약 차단 시스템 마련 △ 실명제/인증 시스템 도입 △ 노쇼 피해 신고 발생시 즉시 신고 및 법적 대응 준비 △ 예약 안내 문구 명시 등입니다. 결국 예약 단계부터 예방을 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노쇼 사기’는 국민 사이사이의 믿음을 저버리는 행위이며, 신뢰에 따라 지명되는 경제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범죄행위입니다. 국민간의 불신을 조장하고 경제를 쪼뼛으며 국가 발전을 저해하는 노쇼, 보이싱 피싱 등 사기 범죄에 대해 우리 모두가 엄중하게 대응하면 합니다.

‘노쇼 사기’가 의심되거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즉시 112 또는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해야 불의의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사설

제32회 호미회전(湖美會展)

제32회 호미회전이 5월 16일부터 22일까지 전주시 완산구 팔달로 161 전북특별자치도 예술회관 기스라 2실에서 열렸다.

호남 미술인 연합회가 개최한 호미회전의 이번 주제는 ‘전북의 향기’였다.

전시 작품은 이승백 교문의 ‘러브바이트’를 비롯, 고정순 ‘연정’, 김미자 ‘산동의 봄’, 김병희 ‘승리’, 김영남 ‘바닷가에서’, 문인구 ‘유년의 보금자리’, 박선경 ‘가을 사랑’, 안순덕 ‘빛나는 연꽃’, 유명래 ‘보랏빛 향연’, 장순자 ‘선암사 승선교’, 정문희 ‘폭설’, 하마다유미(濱田由美) ‘환희(歡喜)’, 한지현 ‘가을계곡’, 황남현 ‘세월’ 등이다.

호미회는 1994년 이승백 화백이 중등 미술교원 중심으로 창립하여 30여 년을 이끌어왔다. 지금은 교사, 공무원, 자영업, 주부, 아마추어, 종교지도자 외국인, 전업 작가 등이 함께 하고 있다.

이들은 각자의 개성과 창의성으로 호미회를 계승 발전시키고 있다. 이승백 화백은 현재 한국미술협회 고문으로 있다. 목우회, 전미회, 호미회, 상춘회, 전북미술 원로작가, 전라북도미술협회 고문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이승백 화백은 지난 2005년과 2012년 서울 인사동 서울미술관에서 한국 대표 초대작가 초대전을 개최한 바 있다.

호미회 회장 황남현 화백은 전라북도미술대전 운영위원 역임 및 초대작가, 대한민국미술대전 심사위원을 지냈다. 한국녹색미술협회 전북지부장 및 자문위원, 한일창작 교류전 회원 등으로 활동 중이다.

한편 호미회는 1994년 9월 9일 전북예술회관에서 창립전을 열었다.

그 뒤 해마다 전북예술회관 전시실에서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다.

전북자치도 감사 내부인사 문제

전북특별자치도 공직사회의 기강과 행정의 신뢰도를 책임지는 감사위원장 임명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기관의 독립성을 상징하는 위원장 자리에 지사가 처음으로 내부인사를 발탁하면서 논란을 자초했다.

사전에 충분한 법률 검토 없이 이뤄진 탓에 뒤늦게 법적인 자격 시비로 이어지고 있다.

전북도 공직사회 부정부패를 예방하는 감사위원회는 고도의 자치권을 얻은 특별자치도를 견제할 독립된 기구다.

하지만 독립성 확보라는 과제가 출범 전부터 꼬리표처럼 따라붙었다. 이를 의식한 듯 지사가 처음엔 외부 인사를 위원장에 발탁했지만, 지난달 후임으로 내부 공무원을 임명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사무국장 역할을 하다가 감사위원장으로 추천이 된 것이다. 핵심은 이 사례가, ‘감사 대상이 되는 기관 공무원은 퇴직한 뒤 2년이 지나지 않으면 감사위원이 될 수 없다’는

전북특별법의 하위 조례가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퇴직한 뒤 2년이 지나지 않은 건 너무도 명백한데, ‘감사 대상 기관 공무원 이었는지에 대한 해석은 분분하다. 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관은 감사위원회를 제외한 피감기관을 말한다.

반면 도의회 입법정책 담당 부서가 뒤늦게 법률자문을 의뢰한 결과는 감사위원회 주장과 다르다. 감사위원장의 직전 신분인 사무국장도 도청 집행부의 일원이라 감사 대상이 맞다는 설명인데, 결국 결격사유가 된다는 해석에 더 가깝다.

도의회는 인사 청문 과정에서 이 부분을 제대로 따져보지 않은 채 임명을 동의해왔다.

임명권자인 지사와 인사 검증을 맡은 도의회가 해석이 엇갈리는 사안을 의도적으로 회피했는지 아니면 간과했는지 알 수 없지만 논란을 자초한 것은 분명하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

